

‘뉴민주당 플랜’ 주류-비주류 노선 갈등 본격화

“현실 대안도 중요” “선명성 포기 안돼”

민주당은 19일 지역위원장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당의 정체성과 진로를 담은 ‘뉴민주당 플랜’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비주류 측이 뉴민주당 플랜의 ‘탈(脫)이념 현대화’ 노선과 성장 중심 정책 등에 강력 반발함에 따라 계파 간의 노선 투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우선 당내 비주류연합체인 민주연대 공동대표인 이종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참여정부 때도 좌측 압박이 커지고 우측으로 가다 정체성이 훼손됐다”며 “뉴민주당 플랜이 폐기되는 결과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정배 의원도 뉴 민주당 플랜과 관련,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뉴라이프 선언’과 같은 것 같다”며 “한나라당의 선진화와 민주당의 현대화가 확연히 구분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했다.

여기에 추미애 의원은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혁의 실패로 서민과 중산층 이탈을 초래한데 대한 책임과 반성을 외면한 자기기만이자 지지층에 대한 배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비주류 연합체 성격인 민주연대는 성명을 통해 “우리 짓을 버리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것은 정체성만 흐리게 할 뿐으로, 시기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일단 6월 국회에서 MB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논의의 전면 연기를 촉구했다.

구 민주계의 박상천 의원은 “현대



19일 오후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뉴민주당선언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전체회의에서 김효석 민주당정책연구원장(왼쪽부터),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등이 축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탈이념 현대화 노선·정책 싸고 격론

전정배 “한나라 선진화와 구분 어려워”

화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인만큼 ‘중도개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중산층을 포용하지 않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민주당 플랜을 주도한 김효석 민주당정책연구원장은 “뉴민주당 플랜은 희망있는 대안정당으로 피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필요하다면 보수의 정책도 받아들이는 중도적 관점에서 현대화라는 표현을 채택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뉴 민주당 플랜을 둘러싼 계파 간의 첨예한 대립은 당내 주도권 싸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단 주류 측은 ‘탈(脫)이념과 현대화’를 내세우며 당내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그러나 당내 비주류연합체인 민주연대와 친(親)정동영계가 주축인 국민모임 등 강성 비주류그룹은 우경화

논란을 집중 제기하면서 선명성 강화를 주문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대표는 “다양한 비판도 뉴민주당 플랜에 녹여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2012년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민노당 사이에서 샌드위치에 된 상황에서 정책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 순회 당원 토론회를 거쳐 뉴민주당 플랜을 확정할 방침이며 이후 비전위와 혁신위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키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親李 분화 가속화 가능성 親朴 표쓸림속 일부 이탈

한나라 내일 원내대표 경선 계파별 표심 향배 관심

21일 실시되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계파별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까지 한나라당 주류인 친이(친 이명박)계는 분화가 가속화될 조짐을 보였다. 친박(친 박근혜)계 경우는 ‘황우여-최경환’조 쪽으로 표 쓸림 속에서 일부의 이탈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친이계=원래 느슨한 조직이었지만 구심력이 겹으로 드러날 정도로 약화하고 있다. 황우여 의원이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을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자 일부 친이계 의원들은 황 의원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핵심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안상수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이상득 의원을 겨냥했다. 이 의원이 개입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

고 있다. 일부 친이계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 논란 차제를 불쾌해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로 있는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19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회의 98명 가운데 17명만 참석하는데 그쳤다. 친이계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이와 함께 친이계 모임 ‘함께 내일’도 친이계 후보를 공개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박근혜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이를 위해선 차기 원내대표단에 친박계를 주요 포스트에 얹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가 내부 분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친박계=박근혜 전 대표가 최 의원의 출마를 사실상 묵인한 만큼,

친박계의 표는 일단 황우여-최경환 조에 쏠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다만, 강제집계로 분류되지만 역시 친박 성향인 김성조 의원이 안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만큼 일부 표는 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영남 재선 의원은 이날 19일 “박 전 대표가 최 의원 출마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친박표는 대부분 황우여-최경환 조를 지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친박 초선은 “경선이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책위의장 선거같이 돼 최 의원이 친박표를 많이 가져갈 것”이라며 “김성조 의원에겐 일부 표가 갈 가능성도 있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친이도 친박도 아닌 ‘중립 원내대표’를 오래전부터 선호한 것 같다”면서 “박 전 대표가 최 의원보다는 황 의원을 오히려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합의 이행 하라” Vs “시민단체와 연대”

여야 미디어법 처리 놓고 전초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또는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미디어법 처리 여야가 벌써 전의를 다지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진보 진영 시민단체와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MB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를 다진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 포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이 미디어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 재검토 방침을 표명한 데 대해 이날 “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지키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야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민주당의 당 대표가 직접 ‘6월 표결 처리한다’는 내용을 요청했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는데 이제 와서 사정 변경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이 문제는 더 이상 쟁점화할 사안이 아니며, 약속대로 이행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 지도부와 함께 ‘반민생·반민주 MB악법’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야

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대응을 간담회 공조를 다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악법, 비정규직 양산 등 비롯한 노동탄압, 공안탄압 등 민주주의 전반의 문제다. 민중생명의 상징인 개성공단 문제까지 꼬여 있다”며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총발로 소통하고, 필요한 때에는 손잡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가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 지역순회 토론회를 계속하는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여의도 공원에서 촛불문화제도 열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다수의 힘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 후퇴 막겠다”

“죽창 시위로 한국 이미지 큰 손상”

우윤근 민주수석부대표



“최와대 등 핵심 권력과 다수의 힘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 수석부대표에 임명된 우윤근 의원(광양시)은 1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를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나라당과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인다면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더라도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호남지역 현안 문제 등과 관련, 우윤근 수석 부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호남의 정책적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정부 압박을 통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의 발전 등을 견인,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대통령, 엄정 대처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지난 주말 대전에서 발생한 화물연대의 ‘죽창시위’와 관련,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면서 “국회법 위반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이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바 있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과격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내달 발표할 예정인 공공기관장 평가에 언급,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결코 형식적이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그 결과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결과에 따른 확실한 신상필벌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Mega Police Academy (메가경찰학원) featuring a table of courses and fees. Courses include 6-month and 1-year programs with various subjects like law, ethics, and physical training. Contact: www.gmega.co.kr, 226-5050.

Advertisement for Mdgosi (MDGOSI) featuring a table of services and fees. Services include 7.9 grade public service training, job placement, and career counseling. Contact: www.mdgosi.co.kr, 222-4560.

Advertisement for IPALG Hybrid Exterior Waterproofing Remodeling. Features include IPALG Hybrid Exterior Waterproofing, economic and reliable technology, and various services like painting and waterproofing. Contact: www.IPALG.com, 061-284-0485.